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頁

社說
메멜問題의 歸趨
總選擧結果가注目

一

단치히와 波蘭廊問題와함께 東歐의 火藥庫이오 歐洲의 癌이라는 係이잇는 메멜地方의 議會總選擧는 去二十九日부터 同地方 全領域에 亘하야 一齊히 開始되엿는데 今般 總選擧에서 리트와니아系가 絶對多數를 獲得한다면 몰라도 獨逸系가 九割以上의 多數를 占하게 된다면 獨逸은 메멜地方의 回收를 企圖하고 그 準備로 提議하게될터로 事實上 메멜地方의 歸屬을 決定하는 人民投票와 性質上 다를이업는 重大한 選擧로서 이 結果如何로는 歐洲에 又復 一大紛爭을 惹起할 憂慮가 잇는것이니만치 歐洲人의 視聽이 壽府를 떠나서 이곳에 集中되고 全世界의 注目이 또한 이에 쏠리지 안흘수업게되엿다.

二

메멜地方이 大戰前 五六世紀동안 普魯西領이엇던바 大戰後 平和會議는 同地域의 리트와니아性을 認定하야 리트와니아에게 讓渡하는것이 適當하다고 聯合國을 爲하야 同地方을 抛棄케하얏다。이것이 一九二二年十二月 리트와니아建國과 同時에 리트와니아人의 占領한바되어 其後 幾多의 曲折을 經한後 同二四年三月 英佛伊日과 리트와니아間에 締結된 메멜地域讓渡條約으로 메멜舊獨領은 리트와니아主權下에 特殊自治體를 形成하야 今日에 至한것은 周知의 事實이다。그러나 聯合側이 메멜地方의 리트와니아性을 認定하고 同地域의 住民의 大部分이 리트와니아系라고 判斷을 내린것이 큰 錯誤이니 事實로 이러타면 問題는 업슬터이나 每選擧의 結果는 獨逸系가 絶對多數를 占하야 리國政府를 代表하는 行政府長官等과 代議院과의 衝突紛議는 不絶하야 物情이 騷然하고 獨逸의 策謀運動과 리트와니아의 메멜獨逸化防止를爲한 彈壓으로 問題는 去益尖銳化하고 잇는터이다。

三

메멜地方은 面積一千四百平方粁、人口約十四萬七千의 小地域이나 메멜河는 리트와니아人의 重要交通路이오、또 메멜港은 리트와니아國 唯一의 海港이니 만치 同國에 對한 重要性은 再言할 必要가 업다。리國人이 메멜로써 自國의 生命線이라할도 無理가 아니다。一方獨逸에 잇서서는 同地方의 舊獨領으로서 獨逸系住民이 最多數이라는것으로 同地域을 回收코저 하는것뿐만이 아니오 獨逸의 所謂 東漸政策의 發現으로서 重要視되는 것이니 西로는 로카르노의 障壁이 잇고 南으로는 黑衣宰相의 牌腕가 잇스며 東南의 우크라이나는 波蘭을爲하야 讓步하고잇는 獨逸로서는 東北의 메멜에 손을 뻐칠수박게 업다。이리하야 메멜、단치히、波蘭廊을 손에 너허 東普魯西와 連結하고 바틱三國을 끄을고 波蘭과 握手하야 蘇聯을 牽制한다는것이 獨逸의 秘藏한 遠大한 魂膽이다。오늘의 바틱三國은 蘇聯과 接近하고 오히려 獨逸을 멀리하고 잇는터로 過般의『革命陰謀事件』까지도 發生하고 잇서서 獨逸로서 目的을 達하지못하고 잇스나 如何튼 메멜을 어찌 [坐]視하지 안켓는가?

四

獨逸은 지금에도 메멜地方의 [illegible]는 五大國의 [illegible]으로 成立되고 列國監視下에 리國의 正規兵이 占領한것이라고 主張하야 責任이 全然 列强에 잇다고하야 끗까지 메멜奪還을 企圖하고 이로서 東歐進出을 꾀할 決意를 굿게하고 잇는것은 過般 히틀러總統의 聲明으로서도 明白하거니와 一方 리트와니아로서는 祖國의 生命線을 獨逸을 排하여서 까지라도 死守할 悲壯한 覺悟를 하고잇서서 메멜을 繞圍한 兩國의 鬪爭은 白熱化하여간다。이러한 空氣中에 施行되는 今般選擧는 벌서 各地에서 衝突等 不祥事를 續出하고잇는데 同地方의 全人口의 九九%以上이 獨逸系이以上 獨逸系가 壓倒的勝利를 獲得할것은 確實하다는바 事實 結果가 그러케되는때에 리트와니아가 이를 承認할는지도 甚히 疑問이니 그境遇에 一騷動은 또한不可避 模樣으로 選擧의 結果야 말로 極히 注目되는바이다。

國體明徵에關한 各省實施概要
◇……一日閣議決定發表

【東京電話聯合】國體明徵에 關한 具體的處置는 內務、司法、文部의 關係各省에서 이미 各各 實施하고잇는데 美濃部博士의 處置에 關聯하야 軍部大臣으로부터 再聲明의 要求에 接하야 政府는 過般來 白根翰長處에서 各省의 處置槪要를 調査中이던바 一日의 閣議에서 이것을 提示하고 各閣僚의 承認을 어더 如左히 發表하엿는데 同閣議席上에서 岡田首相이 그 措置槪要中에는 아울러 政府의 將來의 方針도 包含되어잇서서 政府로서는 旣定方針에 基하야 國體明徵에 關하야 一層 努力하고 特히 司法、文部、內務各當局은 步調를 合하야 遺憾업기를 期해주기바란다는 旨를 거듭 要望하얏다

◇發 表◇

國體明徵을 爲하야 取한 處置槪要는 如左하다.

一、憲法의 講義에 關한 處置
1、擔當敎授、講座、講義內容等에 關한 處置
2、敎科書에 對한 處置
3、法制、經濟科、修身科擔任敎員及 學生主事協議會의 開催
4、直轄諸學校의 特別講義

一、憲法關係出版物에 關한 處置
1、發賣頒布禁止改訂
2、絶版
3、司法處分

一、國體觀念徹底에 關한 處置
1、訓令、訓示、指示
2、研究、講習、講演
3、憲法敎育資料의 作成配布

政府報告書全文

【東京電話聯合】軍部兩相의 要求에依하야 發表하기로된 國體明徵에關한 政府의 實質上第二次聲明이라고할수잇는 國體明徵實施報告書는 過日白根內閣書記官長의 손으로 再調査中이든바 成案을 어덧슴으로 一日의 閣議에諮하야 正式決定後 如左히 文部、司法、內務各關係省에서 政府의 對策實績을 詳述한報告書를 發表하얏다。

(國體明徵을 爲하야取한 措置概要)

國體明徵을 爲하야 取한措置槪要는 如左하다

一、憲法의講義에 關한處置

一、擔當敎授講義內容等에 關한 處置.

(가) 文部省에서는 擔當敎授의 學說을 그著書講義案論文等에 依하야 詳細히 調査함과同時에 그推移에 關하야 注意하고 右調査에基하야 必要하다고 認定한것에 對하야는 當該敎授의 思想內容等을 聽取함과 同時에 必要한 處置를 講究하고 (나) 帝國大學 公私立大學等에서는 文部省의 訓令 其他文部省의 方針에 基하야 法政科敎授 特히 憲法擔當敎授講師의 選任 擔任講座의 變更講座內容의 改善에 適當한處置를講究하고

東京、京都、東北、九州各帝國大學等 모다 積極的의 講義를 아니하고

東京商科大學講師 美濃部達吉은 本年四月辭職하야 目下休講中이며

神戶商科大學講師 佐佐木惣一은 本年五月辭職하야 目下休講中이며

其他公私各大學共히 積極的의 講義를 排除하얏다

二、敎科書에 對한處置

敎科書中 國體明徵에 關하야 不適當하다고 생각되는것에對하야는 此를 使用치못하게하얏다

三、法政經濟科 修身科擔任敎員及學生主事協議會의開催

官公私立高等學校 官立專門學校 法制政治科擔任敎員及帝國大學 官公私立大學 高等學校 專門學校 學生主事를 招集하야 協議會를 開催하야 法制政治科와 修身科의 敎授內容을 一層國體明徵의 效果를 내도록 하는方法에關하야 協議하얏다

이結果의 大要를 示하면 如左하다

法政科特히 憲法의講義에서는 憲法의 精神의 徹底에 [illegible] 上諭를 明白히하고 이것을 基本으로 講義함을 要함

一、今後는 敎師自身이 一層國史의 硏究를 充分히하야 我國體의 眞義를 體得함에努力함을要함

一、國體의明徵은 我國史의 史實을 基本으로함으로 文化方面에잇서서도 勿論 [illegible]科方面에잇서서도 特히 國史의眞髓를 理解식힘에 一層努力할것

一、諸外國의그것과 比較研究함에依하야 一層我國體의 尊嚴性을把握식힘이 重要하다

一、國體明徵을 期하자면 [illegible]을排斥하고 敎育에置重할지며 理論보다는 實踐指導에 努力함을要함

四、直轄諸學校의 特別講義

直轄諸學校의 特別講義는 [illegible]부터 我國體及國民性을明白히하고 思想問題에 關하야는 嚴正한 批判을 養成함을 目的으로하나 本年度부터는 一層國體의 明徵에關한 主旨의 徹底를 期하기爲하야 學校當局과 協力하야 이것의 實施에 努力하고잇다 例하면 本年度中에 施行된 特別講義의 題目에는 黑板勝美「日本國體의自主」(七高)山田孝雄「國體의 意義과國民精神」(仙臺高工)과 如한것이잇고 今後 各種學校에 亘하야 本制度의 擴充實에 努力하고저한다

一、憲法關係出版物에 關한處置

(一) 發賣頒布의 禁止改正、美濃部達吉著『憲法撮要』『逐條憲法精義』『日本憲法의 基本主義』의 發賣頒布를 禁止하고 同人著『現代憲政評論』『議會政治의檢討』에 對하야는 改訂을 命하얏다또今後도 同樣發賣頒布禁止削除 其他適當히 嚴重한 處置를하야 此種出版物의 絶滅을 期하고잇다

(二)絶版

田畑忍著『帝國憲法逐條要義』森口繁治著『帝國憲法』市村光惠著『帝國憲法論』外二十數種의 憲法著書及 約十種의 法學通論著書는 當局의 注意에依하야 絶版하얏스며 또同樣의것이잇으면 同樣方針이다

(三)司法處分 美濃部에關한 新出版物은 出版法에依하야 取締할方針이다

一、國體觀念徹底에關한 措置

(一)訓令訓示指示

昭和十年四月十日 文部大臣의 國體明徵에關한 訓令을 發하야 各種의 會議等에 그主管大臣으로부터 訓示指示를與하야 이것의徹底를期함

(二)研究 講習 講演

各省에서는 從前의 講習會又는 定例의 會集 講習會等을 利用하야 又는 臨時 特히 講習會 講演會를 開催하야 國體觀念을 涵養함에 努力하고 文部省에서는 特히 憲法講習會를 開催하야 官公私立高等學校 專門學校 長官公私立高等學校 專門學校法政修身擔任敎員及生徒主事 帝國大學官公私立大學學生主事 其他關係者에게 講식히며 又는 國體明徵식힘을 根本精神으로 設立한 國民精神文化研究所에서는 더욱 그研究를 進展식혀 그成果는 刊行配布하야 普及함에 努力함과 同時에 年二回六十日間 全國師範學校 中等學校의 敎諭를 모아서 徹底的으로 國體觀念體得敎育을 實施하고 將來 더욱 이施設은 擴充하야 眞日本國論文化研究實現에 努力하고저한다

特히 法制方面에서는 研究目標를 日本國家學의 確立에 두어 根本的研究를 盛히하고잇스며 그研究題目의 一、二를 들면 如左하다

帝國憲法과皇室典範 大串 所院
敎育勅語와帝國憲法의關連性 藤澤研究所附託

中央의 國民精神文化研究所設置와 同樣의 精神으로 各府縣에 國民精神文化研究所를 設置하야 目下鋭意 그事業을進行하고잇다

(三) 憲法敎育資料의 作製配布

일즉이 國體明徵에 關한資料를 作製하야 이것을 配布하야 敎養에資케하고잇스며 最近文部省主催의 憲法講習會에서 金子伯爵의 講演『帝國憲法制定의精神과 歐米各國學者政治家의批判』은 이것을 小冊子로하야 달리 配布함과同時에 一定條件下에 公刊할을 許可하야 그普及을圖謀하는外에 繼續하야 多數의憲法敎育資料를 發行할豫定이며 그中一二의題目及 執筆者를 들면如左하다

日本國體의本義 廣島文理科大學敎授 西晋一郞
帝國憲法制定由來 維新資料編纂官 藤井甚太郞
帝國憲法의根本義 東京帝國大學敎授 筧克彦

又國民精神文化研究所에서는 日本文化에 關한 文獻蒐集大成과 國體의本義 直日本精神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야 日本文化에 關한一大選集編纂을 企圖하고잇다

來獨한匈首相
獨政府首腦部와會談

【伯林三十日發電通】二十九日來伯林에 來하야 獨逸政府首腦部와 重要會談을 하고잇는 匈牙利首相 꼼베스將軍은 卅日 베스無任所相、샤하트經濟相、게스벨스宣傳相、리벤트롭外交使와 各各 個別的으로 會談을 行하엿다

埃及國民黨에서 完全한獨立力說
伊에紛爭機會로伊國이陰謀說

【카이로三十日發聯合】伊에紛爭을 契機로 埃及國民黨의 運動은 依然 激化해지는데 時節이 時節이라 裏面에 伊太利政府의 策動이 잇다고 보이어 자못 重大視되고잇다 埃及前首相으로 와프드黨首나하스파샤氏는 埃及의 完全한獨立을 力說하고 公然히 埃及獨立黨明의 提議를 强調하게되어 이에 同問題는 드듸어 本格的政戰化하게되엇다

日本의態度는 旣定方針堅持
海軍軍縮問題에對하야

【東京電話聯合】海軍軍縮問題에 關해서는 英國政府가 日本政府의 眞意를 打診해왓스므로 日本政府로서는 目下 外務、海軍兩省에서 回答案을 考究中인데 一日의 閣議에서 英國政府의 軍縮會議開催에 關한 日本政府의 眞意를打診해온 內容과 軍縮會議에 對한 英米佛伊獨의 態度에 對하야 詳細報告하고 또 이列國의 態度에對應하야 取할日本政府의 態度는 끗까지 旣定方針을 堅持하고軍縮의 眞目的을 達成할方針이란 旨를 述하엿다 그리고 外相은 에디오피아 問題에 對해서도說明報告하얏다

伊、에領內進軍說로 佛領當局緊張

【倫敦三十日發】이브닝스탠다드紙아디스아베바特電에 依하면伊軍이 佛領소말릴란드에 新設한 에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假設國境線을 突破하야 에디오피아領內二十哩의 地點까지 進軍하엿다는 風說이 傳하얏기때문에 佛領소말릴란드當局은 極度로 緊張하야伊、에兩軍의 衝突이 佛領에及할것을 念慮하야 國境地方의 防備를 굿게하는等 萬一의 準備에 着手하엿다고한다

商船不法攻擊에 英佛共同行動
對伊經濟的制裁斷行할時에 伊太利가挑戰하면

【倫敦一日發電通】이부닝포스트紙의 所報에依하면 英國政府는 約一週間前 佛國政府에 通牒을 보내여 聯盟이對伊經濟的制裁를 斷行할境遇에 萬若伊太利人이 英國商船에 不法攻擊을 加할時는 英佛艦隊는 即時協力하야 聯盟規約의 趣旨遂行을 期코저 미리 佛國의意向을 아러두고싶흔 希望을說明하얏다 이에對한 佛國의 回答은 近日發送될터로 同答의趣旨는 英國의 要求에同意를與하고 英佛艦隊共同行動을 豫約할것이라한다

004660

에問題와英佛伊
戰爭危險은薄弱 에國은이미滅亡
⑥ 徐 椿

四、戰爭이될까

여기서 누구나 알고십흔것은 今番 에디오피아問題가 伊에兩國間의 戰爭 又는 英國까지너허서의 戰爭이 될가? 하는 一點일것이다。그러나 이 一點에對한 豫言은 모세가 다시 나고 이사야가 再生해도 하기 어려울일이다。그러나 過去를 材料로 하고 現狀을 土臺로하야 將來의 傾向如何에 對하야 우리더러 臆測을 試하라고 하면 十에 八까지는 戰爭이 안될뜻하고 나머지 二割쯤은 戰爭이 될듯십다는데 잇다。이말은 勿論 戰爭 안될氣運이 戰爭 될 傾向보다 더 만타는 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不戰氣運과 戰爭傾向의 比率을 表하는 말이다 그러면 그러케 말하는 根據가 어디 잇느냐하면 如左하다。첫재 不戰氣運으로 말하면 이것이 戰爭까지 되고 안되는 英佛伊三國의 意思如何에 달리엇는데 우리가 이미 前述에서 大綱 본바와 가티

(1)英國은 伊太利를 누르는것이 目的이지 꼭戰爭을 할 생각은 업는나라다。그러기때문으로 伊太利가 꺼플만이라도 에國의 主權을 尊重하거나 또는 英佛伊三國分割에 同意해 준다면 그는 戰爭을 안코 그만 둘 作定으로 잇다。

(2)佛蘭西는 더구나 이것이 戰爭이 되여서는 안되겟다는 方針下에 伊에兩國의 사이에서 서로 讓步하고 서로 緩和하야 無事히 解決되기를 바라는 나라다。

(3)伊太利도 이 일을 始作할때에는 英國이 그러케 强硬히 덤벼들줄은 모르고 始作한 모양인데、及其也에 事態의 經過를보즉、優勢艦隊를 地中海로 모라드린다、또는 單獨으로라도 制裁를한다、等等英國의 氣勢가 아조猛烈하니、이것을 보는 伊太利도 多少의 反省을 할수박게 업시되엿다。

(4)또한 事端이 發生혓을때에 이어 衝突되엿서야 戰爭이 되엿슬터인데、그만 이러저러 時日이 遷延되는 동안에 雙方이 다 反省氣分을 濃厚하게 가지게 되어버렷다。個人間의 싸움도 그러하거니와 國家間에도 反省의 時間을 가지게 되면 참 할 理由보다 안할 理由가 더 만흔 法이다。이러케 생각하면 十에 八까지는 戰爭이 안될뜻하다。그러나 (1)伊國의 國內事情이 戰爭을 始作하지 안코는 못솔리니首相의 政治的勢力을 維持할수 업시 되엿거나、(2)地中海에 進駐된 英國艦隊와 伊太利艦隊와가 어떤 偶發的動因에 依하야 衝突하거나、(3)에國國境에서의 伊에兩軍이 重大한 衝突을 하거나 이 세가지 事端中 그하나만 發生되는 날이면 三國의 欲不欲을 勿論하고、戰爭이 일어날는지 모른다。이것이 二割쯤은 戰爭이 될뜻하다는 理由다。

五、世界大戰을 誘發할까

이問題가 戰爭이 되는날이면 單純한 伊에戰爭에 끄치지 안코、英國까지 그渦中에 드러가고야 말것은 발서 어느程度까지 旣定의 事實이라고 할수가 잇다。그러타면 그餘波는 第二次世界大戰이다。그러나 第一次世界大戰과는 形式을 달리하야 全世界가 아조 敵我 두便으로 갈리는것이 아니라、伊太利가 英國과 맛부듸면、獨逸은 따로 그를 타서 佛蘭西를 侵하고 露西亞와 맛 부터 싸우는等 數三件의 戰爭이 倂發하지 안홀까하는것이 余의 想像이다。

六、에國의運命如何

問題의 에디오피아帝國은 나로 보건대、今番、紛爭의 結果如何를 기다려서 그 存亡이 決定될것이 아니라、이 紛爭이 일어나든 當時로부터 발서 亡해버렷다고 볼수밧게 업다。그것은 달리 理由를 무를것이 업시、紛爭發生以後 今日까지의 에國의 戰爭廻避的、無條件屈服的態度를 보아도 알만한 일이어니와、또한 에國의 이態度에 對應하야 나오는 伊國의 强硬要求는 말도 말고、所謂、勿論、에國을 爲하는 良心으로 그러는것은 아니지마는 戰爭防止上、에國과 가튼便에 섯다는 國際聯盟及 英佛側、特히 英國의 提案內容을 보면 더욱 明白히 알수잇는 일이다。要컨대 紛爭의 結果如何를 보아서야 알수잇슬 일은 問題의 에디오피아의 運命이 伊太利가 혼자 먹느냐? 英佛伊三國이 난호아(分)먹느냐? 하는 一點이오、六千年의 皇統連綿을 자랑하든 黑人帝國에디오피아는 이것이 戰爭까지되고 안되고를 勿論하고、事端發生當初에 발서 亡해버린것으로 보는것이 妥當할뜻하다。(完了)

米收穫豫想高
青森外十五縣分

【東京電話電通】農林省 第二次公表、九月二十日現在 米第一回收穫豫想高 青森縣外十五縣分은 左와如하다 (單位石)

縣名	收穫豫想高	昨年實收高比較	前五個年平均實收高比較
青森	八六三、五〇〇	增 二五四、一七七	減 二五五、一〇三
山形	二、〇五六、七〇〇	同 九三四、〇三〇	增 一五九、一四九
茨城	一、九九七、一二〇	同 六七、七七〇	減 一六八、九七七
福井	一、〇八〇、〇八〇	同 二五五、一二八	增 七七、四三二
長野	一、三三〇、三三〇	同 三七〇、一〇〇	減 一三四、二四四
靜岡	一、二二七、九二〇	同 三二、七七八	同 一〇八、三九九
奈良	七六九、二〇〇	同 二三、七七〇	同 一三、九五三
和歌山	五〇三、一三〇	同 二九、〇八〇	同 二、〇三八
岡山	一、八〇八、三〇〇	同 四〇四、二一四	增 九六、二五九
廣島	一、四四六、〇四〇	減 三六、二二八	同 四四、七五〇
山口	一、五一三、五〇〇	增 一八八、六四九	同 四四、四一七
香川	九九四、四八〇	同 二五三、四九一	同 一〇〇、二三九
熊本	一、八〇七、五六〇	同 二〇七、二二〇	同 二三、八六六
大分	一、二六〇、一八〇	同 一七二、五六八	同 六四、五四八
宮崎	九七七、二四〇	同 三四一、七七九	同 二七、八二六
冲繩	八九〇、一二〇	減 八九九	增 一八、八九八
計	[illegible]	增 [illegible]	同 [illegible]
累計	[illegible]	同 [illegible]	同 [illegible]

本社電話番號變更

十月一日부터 本局區內가 自働式電話로 變更됨에따라 本社電話도 本局으로 編入되는 同時에 左記와如히 番號가 變更되엇사오니 以此照亮하심을 望하나이다。

代表番號 (長)本局 一一九一番
長距離代表番號 (長)本局 一一九七番
夜間專用(編輯局) (長)本局 一一九七番
同(宿直) (長)本局 一一九八番
京城販賣所 本局 一五九七番

朝鮮日報社

民間功勞者
敍勳賜杯賜金褒章

【東京電話聯合】朝鮮始政二十五周年에 當하야 朝鮮開發에 盡力한 有賀朝鮮殖産銀行頭取以下 左記十五名의 民間功勞者에게 敍勳賜杯賜金 褒章下賜의 御沙汰가 게시엇다

從四位勳四等 有賀光豊
敍勳三等授瑞寶章 從六位 野口遵
敍勳四等授瑞寶章 正五位 賀田直治
敍勳六等授瑞寶章 荻野順導 吉田秀次郞
藍綬褒章下賜(各通) 太田秀山 韓相龍
銀盃一組下賜(各通) 勳六等 迫間房太郞 大澤藤十郞 齋藤久太郞 文明琦 金鍾翕 石原磯次郞 姜氏(烈婦) 李氏(貞女)
金五十圓下賜(各通)

그리고 左의外國人二名에 對해서도 敍勳과褒章下賜의御沙汰가 게시엇다

敍勳四等授瑞寶章 윌리엄、씨、케르
藍綬褒章下賜 아릿스、아르、아펜셀라

蘇對新疆密約
赤化勢力을强化

【新京一日發電通】新疆省에在한 蘇聯의 赤化工作이 最近活潑化하고잇는此際 當地某機關은 極히 最近蘇聯政府와 新疆省當局間에 昨年一月締結된 密約을入手하얏다 그內容은 實로 左와如히 놀날만한것으로 新疆省에在한 蘇聯側의 赤化工作은 다 이密約에 基한것임이 判明되엿다 蘇聯과新疆省政府는 新疆省의 國境防備强化及經濟發展의 見地로서

一、蘇聯의 極東軍備를 强行키爲하야 新疆省政府는 蘇聯兵의 新疆省國境의 自由出入을許可함
二、新疆省이 第三國으로부터侵略을바들念慮가잇는時는蘇聯은 省政府와 共同防衛하기를 約함
三、省內에 東北軍事政治學校를 設立함
四、蘇聯은 新疆省에 對하야 軍事上必要한 一切의 武器彈藥을 供給함
五、省政府는 蘇聯邦으로부터最高軍事顧問을 招聘함
六、新疆省의 經濟開發建設事業을爲하야 蘇聯邦으로부터 左와如한借款을함

經濟建設 九千萬元
軍事建設 七千萬元
交通建設 五千萬元

蘇聯銀行의 分行設置를 許하고 또紙幣의 發行을許함

夕刊後市況 一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〇二七〇 (不變)
鐘新 一三二一〇 (一〇高)
日産 八五五〇 (二〇高)
東新 一六六一〇 (不變)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四四〇〇 先限 八三九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大七〇〇 先限 大八八〇

早稻田大學의講義錄

入學은只今
十月一日、秋期新學期를開始한다。

普校만 卒業하고도 名譽잇는早稻田大學의 校外生이되는 機會를 逸치말라。

아즉 內容見本을 보지못한분은、只今 곳 請求하여서、入學手續을하라。

光輝잇는早稻田大學校外生의帽章。이外에洋服단추、襟章、校外生章等잇슴。

中等學校程度

講義	月額	期間
中學講義	月一圓	前期後期各一ケ年
商業講義	月一圓	一ケ年半
女學講義	月一圓	一ケ年半
電氣工學豫備講義	月一圓	一ケ年

專門學校程度

講義	月額	期間
文學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法律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政治經濟講義	月一圓廿錢	一ケ年半
建築講義	月一圓卅錢	一ケ年半
電氣工學講義	月一圓卅錢	二ケ年半

內容見本進呈

自己希望講義名을葉書에明記하야곳申込하시랑。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電話牛込三三四五

扶安郡의旱災民 數萬名糧途가漠然
볏집삶은 물먹는것도잇다
時急한救濟策이必要

【扶安】 전북부안군의 한재상황은 상상이상으로 심각하야 추수기에들엇스나 그들은 동진삼간평야(東津三平野)에는 몬지만날니고 십여(?)식은 말러비트러저서 농민들은 배를곰나매고한숨을쉬이며 바라볼뿐이다 벌서부터 식량이업서저서 모다굶다시피하는데 금후 그들수만재민의생도가 막연하여 자못우려되는바라는데 지방유지들이 구제회를조직하고 활동중 해안면 구제회 위원들은 당국에 진정까지 하엿스며 더욱이 듯는사람으로도 눈물을 자아내게하는것은 굼주림을 참다못해 수확가망업는 벼를을비여다가 쌀머서 그물을먹는것도 잇다는것이다 이런듯 비참한 지경에 이른 재해에 당국의 적극적 구제책이업스면 안되리라고 일반의 여론이놉다

代用作도全滅 木實로僅僅延命
치운겨울을압두고전도막연
長城의旱災民窮狀

【四街里】 전남장성일대는 봄철 변래 초유의 대한재로 모못심고 뿌연백답으로남은논이 그반수를거의점령하게되야 당국의보조로 모밀등속의 잡곡을파종한것이나마 여친데닥치기로 눗장마가저서 압묘가잘되지못하야하낫씩난것이나마 련엽의큰비에모다썩어버리고말앗슴으로 당국의융통수술로 수포로 돌아가는동시에 농민은 그나마 절망이되고보니 작차을치운겨울을 목전에두고 우선당장 먹을것조차업서서 남면으로부터 구렁과 며사리 등을 캐며지고산으로 들로 헤매이며 나무열매며 풀뿌리를 캐는형편인바 그들은 도토리와 상수리를 따다가 말리여 가루를 만드러서 죽을 쑤어 근근히 연명하는데 그나마 도토리등 산열매도 떨어질형편이라는바 치위지는 겨울은 점점압헤닥처옴으로 명년봄까지살어나갈것은 고사하고라도 우선 사라갈것이 막연하다고한다

毘盧第一峰에 紅葉이더욱艶麗
日氣順調로比前尤佳
金剛山의가을消息

【外金剛】 금강산은 원래부터유一한산 보다 긔이한바 이지마는 명한곳으로서 단풍도 별노히달 금년은 절후가 좀 느지나 일기가 온화하고 순조로운 관계로 평년에는 비로봉(毘盧峰)상에는 별노단풍이들지못하는바 금년은 제일로 가려하여 일반탐승객으로 하여금 홍엽미에 매혹케하는바 더욱히 요사이석양에보면 백의석상(白衣石上)에 새이새이로 홍엽이물린 경색은 일필이다 형용하여말할수업스며 단풍의승시는 오는십월중순경이되리라고한다

벼운 가을의 거름발……조선은행압 광장에서

鴨江鐵橋의 通行人激增

【新義州】 물화의 수출입이 더욱빈번하야 짐을따라 압록강철교의 통행인도 점점 증가되는현상인데 지난이십오일 주야간 철교통행인의 수효는 삼만칠천사백인이라한다 이를 작년동긔에 비하면 일천사백칠십이인의증가라고한다 그종별을 들면

▲出境
徒步 一〇、一八五人
自動車 一二〇人
自轉車 五、〇二三人
人力車 三、三七八人

▲入境
徒步 九、九三〇人
自動車 六七人
自轉車 五、〇四七人
人力車 三、二五二人

牛車避든小兒 貨物車에轢死

【奉化】 지난 구월이십구일 오전아홉시경에 경북 봉화군 내성면 포저리(慶北奉化郡乃城面浦底里) 김두건(金斗建)의 차자 긔원(基元)(七)은 길에서 놀다가 마줄 뒤에서 오는 우차를 피하야 길을 횡단할때 뜻하지아니한 내성목재조합의 회물자동차가 내닷는바람에 갈려서 즉석에서 무참히도 죽엇다는데 운전수 김모(金某)는 방금 경찰이 취조중이라한다

爆藥窃取犯被逮

【釜山】 경남 김해군 하동면 월촌리(金海郡下東面月村里) 호전조(戶田組) 배하 산본모(山本某)는 동조 락동강호안공사장(洛東江護岸工事場)에 근무하든바 동 공사장 인부인 량산군 하서면 회하리(梁山郡下西面華里)토목업 김재만(金在萬)외 수명과 공모하고 지난 칠월십오일경에 다이나마이트 수백봉과 도화선(導火線)십미돌 리관(雷管) 백개입 오관을 절취매각하고 또 김해압 강에서 부정어업을 한것이 요지음 발각되여 일망타진적으로 체포하여서 방금 김해경찰서에서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孝誠에타는朴鳥人 今朝에東京出發
故鄕인羅州는空中訪問하고
即日京城에飛來豫定

【東京電話聯合】 조선이나은청년 일등비행사 박봉지(朴奉祉)군은 일주부터 향토방문비행을 계획하야 착착준비중이든바 이에대체로준비를 마첫슴으로 천긔만순조롭게되다면 이일아침륙시경에 주긔(洲崎)비행장을출발하야「가一푸」긔(甲四型戰鬪機)를타고 도중에 대판(大阪)태도세(太刀洗) 울산(蔚山)등지에 착륙하고 당일에 고향인 전남라주읍(羅州邑)의 상공에 나타나 걱정하여주시는 어머님과가족을 비롯하야 향토의인사에게 경의를표하고 즉시경성으로달려와 장도의향행을마칠 예정이라는데 동군의 금번장거에대하야서는 모교인 아세아 비행학교(亞細亞飛行學校)에서 대대적으로 후원을하고잇다한다

苦學하야成功
飛行學校의敎官으로活動

일등비행사 박봉지(朴奉祉)군은 생활에 여유잇는 가정에 셋재아들로 태여낫스나 그가 라주보통학교(羅州普校)를 졸업한후 구년전 봄에 상경하야 시내 휘문(徽文)고보에 입학하야 다니는동안에 그의 엄부가 별세한후 편모시하에서 비교적 신교육에 리해성이 부족한 맛형 박봉일(朴奉一)씨에게서 학비를 어더다가 공부를 하든중 동교 사학년을 수업하고 나서 비행가가될 포부를 가지고 현해탄을 건너 비행학교를 차저갓스나고향에 서는 그의자친이 위험한 비행가가될것을 절대말리는데다가 형되는 박봉일씨도 도저히 승락하지안함으로 이천여석되는 부호의 꼿아들로서 일죽이 밧지못하든 간난신고를 다당하면서 고학할작정으로 비행가가될것을 굿게결심하고「아세아」비행학교에 입학하엿다 처음에는 긔계의소제를하여주면서 긔계에대한 지식을엇고 남달리아츰 일죽이 나와 소제하는틈틈이 각금조종하여보것이라한다 가정의 반대에 겸하여 또고학생이란 남몰을고통을 이중삼중으로 바더가면서 박군의거룩한 긔능은 차차숙련되기 시작하자 그후비행가의 지위를 점점리해하게된 그의형도 약삽년전에 이천여원의 학자를주어 동교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게되엿다 그후련달된 그의긔능은 아세아비행학교에서도 크게 촉망을부치고 박군을 택하야동교교관으로 교편을잡혀 현재에 이른것인데 박군은원래 천성이 순직하야 자긔를표면에 나타내이는것을 절대로 시려하고 한번단행한다는것이면 무어이던지 꿋을내고야 만다는 굳은의지를가진청년이다

十二雙의鴛鴦 共同結婚式擧行
十一月廿三日江西郡梣茨面서
農村人士間에大好評

【江西】 평남강서군수차면 작년과가치 오는십일월입삼리(江西郡水次面三里)고 오일을긔하야 열두쌍의공창동에서는 작년십일월일 동결혼식을 동교회 목사 신상일에 조선초유의공동 변봉조(邊鳳朝)씨주례하에 결혼식을 고창교회당(高 성대히거행하리라하야 벌昌敎會堂)에서 김응욱(金 서부터 각게책임자는 모應郁)씨 주례로 거행하야 든 준비에 분망중에잇다 대성황을일운것은 세인이 이소문이퍼지자 각방면의 다 아는바인데 금년에도 소문이놉흥 근변에 피폐한농촌피혼비로 공연히 허비하는 비용도절로 폐지케되여 간편히될것은 물론이므로 근방 농촌에서는 대찬성이라 한다

全京城商工業者 望月寺丹楓노리
申請은今二日에마감

一、日時 十月六日(第一日曜)
一、出發 集合、淸凉里驛前 午前八時까지 同五十五分發車 到着同九時二十分 望月寺假驛
一、歸路 望月寺假驛發午後五時二十分、淸凉里到着 同五時四十分
一、散會 同五時五十分淸凉里驛에서
一、場所 望月寺一帶 探勝
一、定員 三百名
一、會費 一圓二十錢 (汽車賃、午飯、茶酒類(正宗一合瓶)、記念品、賞品等包含)
一、申請 場所及方法 (本社販賣部 又는廣告部로電話하시면社員이進拜接受함) ▲和信案內係 ▲天一藥房支店(黃金町) ▲和信連鎖店(西大門) ▲以文堂(安國洞) ▲博愛堂(鐘路三丁目) ▲東亞婦人商會(鐘路二丁目) ▲東仁商店(東大門) ▲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南大門市場內)
申請期限 十月二日까지

不正校長排斥 陳情書를提出
蔚山中南公普校長에對해
學父兄側에서憤慨

【彦陽】 경남울산군 중남공립보통학교(蔚山郡中南公普校)교장영전안길(永田安吉)씨의 부정사건은 이미 본지에 보도한바어니와 지난이십구일 학부형대표 몃사람이 교장을방문하고 학교후원회 회계서류를 보여달라고 청구하엿스나 이를거절하고 그외 여러가지 정당한요구를 하여보앗스나 모조리 거절함으로 일반학부형은 다음과가튼 진정서를 군수와도지사 총독부학무국장에 발송하엿다한다

一、영전교장의 횡령한수업료는 군수가바다드렷스나 후원회재산 이백여원은 바들길이 망연하니 이를바다줄것
二、소화팔、구년도 졸업생긔념품대 사십삼원팔십전을 실불구입한바업스니 횡령하엿슴이 분명함으로 이를바다줄일
三、현재이학교는 정원이상을수용하엿슬뿐만아니라 매년 입학지원자가 과대함으로 일반면민은 아동취학상 막대한불안을 가저잇슴에도 불구하고 영전교장의 량년에궁하야 수업료를 횡령코자 재학아동을 청강생으로 위조하고 본면은 향학심이 부족하야 입학자부족이라 하엿기때문에 학급증가의 불필요인줄을 당국에서는 인정할까하야 특히 이에 대한 루의를 바라는것

등의 교장비행에대한 실례륙칠항목이잇다한다

百餘萬圓價格 公債證券을僞造
奉天領警서 一黨檢擧

【奉天三十日發聯合】 봉천일본령사관경찰서 사법계(奉天領警司法係)에서는 수일전부터 신사비슷한 일본인수명을 부잡아다노코 극비밀히 취조를 하고잇는데 이것은 유가증권(有價證券)및공채(公債)위조、변조(僞造變造)의사실이 폭로된 것이라고한다 혐의자는 봉천 저축은행(奉天貯蓄銀行)을 부활시키기위하야 활동하고잇든 원래 조선은행대련지점(大連支局)지배인이엿든 천촌정인(川村正人)과 삼은행 원 지배인 소창모(小倉某)와조선은행 봉천지점차석 영전홍(永田弘)외 위조변조의 금액은 일백십수만원에달한 모양이며 취조에 따라 서사건은 의외의 방면으로 더 발전될것갓다

京城大阪에도 畢竟飛火擴大
警官等出張活動中

【奉天一日發聯合】 공채(公債)위조사건에 관하야 봉천성(奉天省)에서는 다시관계자를 추궁하고 잇든바 전긔와 가티 위조공채를 담보로 조선 은행봉천지점에서 차입할것을 기도하야 미수한외에 산십증권(山十證券)의소수(小藪)는 만주취인소(滿洲取引所)중매인의 지위를 리용하야 위조공채를 저당하야 만취로부터 수만원을 사취한 신사실이 발각되엿다 다시련루자수사를 하기위하야 경성에급행한 송미(松尾)경부 부전(副田)부장은 삼십일 오후 경성에서 위조증권수만원을 소지한 전중모를체포하야 일일오후 네시삼십분에 귀봉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이라는데 사건은 다시확대되야 대판경성등에 파급할형세로 금후취조에따라 영류(永留)씨는위조공채이것을팔고 소각하려다가 아직소각하지안코 은익하여두엇든것이 판명되엿다

運動競技

培材快勝
廿八對三의大差로
對京中럭비ー

朝鮮神宮奉讚京城府內中等學校럭비ー戰은 一日午後一時부터 龍山球場에서 行한바 培材高普가 京城中學을 二十八對三의 큰差로이기고 京師가 龍中을 京商이 進商을 各各快勝하엿다

培村 28 (17 11 / 3 0) 3 京中
京師 29 (13 16 / 5 0) 5 龍中
京商 28 (22 6 / 3 0) 3 進商

그리고 今二日에는 養正高普對善隣商業戰을 龍中球場에서 行하기로되엿다

世界野球爭覇
今日부터 開幕

【세인트루이스聯合廿七日發】 米國職業野球의「내슈낼리ー그」의 優勝者를 決定할「세인트루이스·카디날스」軍對「시카고·컵스」軍과의 決戰은 지난 廿七日當地에서 擧行되엿는데「컵스」軍의 投手「레이시이」의 好投를 連發하야 安打十五本을 처서 六對二의 스코어로「카디날스」軍을 征服하엿다 그리하야「내슈낼리ー그」는「컵스」軍이 覇權을 獲得하야 今十月一日부터 世界野球爭覇戰에서「아메리컨·리ー그」의 覇者「데트로이트·타이거스」軍과 對戰케되엿는바 이 試合의 日程及場所는 廿七日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第一日、第二日(一日、二日)데트로이트球場
◇第三日、第四日、第五日(四日、五日、六日)同上

以上의 五回戰에 勝敗未決時에는 다시 七、八兩日에 亘하야「데트로이트」球場에서 決勝戰을 行케되엿다

萬米에參加한 南昇龍君二着

第十七回關東學生陸上競技大會는 九月廿八、九兩日間 明治神宮競技場에서 擧行한바 萬米에明大在學中의 마라손選手 南昇龍君은 겨우四秒差로 優勝選手竹中君에게 敗하얏스나 마라손選手로서 二分廿秒를 二着하야 明年올림픽에 큰期待를가지고잇다

米國外野手의怪腕 三百呎의스트라익

投手板우에서 스트라익의 놀 던지기도 좀처럼쉬운일이 안이거든 하물며 其五倍나되는 外野에서 捕手에게 向하여 스트라익을 던지는 選手가잇다한다 今春東京에 來하야 巨人軍도 試合한「쪼·데이·마키오」라는 選手 外野手는「三百呎스트라익」의놀 멀지고잇다고 스토리 捕手로第一位를占하고 그의손에걸녀 捕殺된 走者는 到底히 헤아릴수업다고한다 그리고 그는「양키ー스」軍에 드러가기로 契約하고잇는데「양키ー스」의 右翼이 二九五呎 左翼三百一呎임으로 外野에서 手에게 投球하기에는 그다지 힘들지안코 던질수잇다고한다

延專校內씨름戰績

延專校內第四回 新舊學生對抗씨름大會는 十月一日午前九時半同校校庭에서 擧行한바 舊學生軍이 七對四로 得勝하얏는데 個人戰의成績은다음과갓다
▲一等朴潤烈(文二)▲二等李東秀(文二)▲三等金成玗(商二)

早大11A 立敎8

【東京電話聯合】 東京大學野球早大對立敎二回戰은 一日午後二時三分부터 神宮球場에서 立敎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一A對八로 早大雪辱하엿다 閉戰午後四時二十五分
◇投捕=早大(吉原、近藤、鶴岡) 立敎(影浦、豐田、成田)

立敎(先)	020015000	8
早大	004100024A	11A

今日의運動

▲蹴球=京城實業蹴球리그最終日 遞信對殖銀 專賣對殖銀 午後四時半 京城運動場
▲럭비蹴球=朝鮮神宮럭비第二日 養正高普對善隣商業 午後四時半 龍山球場

旗行列과 電車

오늘 일일은 시정이십오주년이므로 경성시내 각학교학생록만명은 거리로 기행렬을하고 전차는 꽃을장식하고 운전하얏는데 외출한사람이 이십만에달하얏다

女子虐待밧고 離婚訴訟

【咸興】 십칠년간이나 엄처(嚴妻)에게 학대를 바더오다가 필경에는 녀편네가 상해죄(傷害罪)로 형까지밧게되자 인제와서는 남편이란 존엄한 지위를위하여서도 용서할수업다고 리혼소송을 제긔한 곤례에 보기드믄 진소송사건이잇다 소장의 내용을보면 함주군삼평면원풍리(咸州郡三平面元豐里) 문경칠(文景七)(三五)(假名)은 원정애(元貞愛)(二五)(假名)와 열여섯살때에 결혼하엿는데 원정애는 원체 성질이 포악하여 결혼즉후부터 남편을 회대하기 시작하여 매일가티 남편을욕설을하면서 심지어 구타까지 합부로하며 가옥을 부시며 의류를 한데 모아가지고 불을 질느기를 일상다반사로하여오든바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른사람을 구타하고 다른집가구를 부신것으로 긔물훼긔급상해의 죄명으로 함흥법원검사국에서 취조를밧고 공판에회부되여잇는데 일이 이까지 이르게됨에 남편도 그위신을 보전하기위하여서라도 리혼을하지안흐면 안되겟다고 소송을제긔하엿다

簞子때문에 道에陳情
永興의業者들이

【永興】 영흥산업조합(永興産組)에서 함남특산물단자(簞子)를일수판매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제산업조합에서 단자를 즉접취급하자면 위선자금이 문제됨으로 산조(産組)가 구입한 단자를 전부인수(引受)할만한 종래상인으로서 연고관게를 가진사람으로하야금 공판조합(共販組合)을조직하자는데대하야 후원도 잇슬뿐외라 도산업과에서도 재래상인측의 생활방도를보장하여준다는 의미로 대단히찬성한바도잇으니만큼 연고자측에서는 활동한결과 이십삼명으로 자금이만원의영흥단자무역운수합자회사(永興簞子貿易運輸合資會社)를 조직하고 지난구월이십삼일에창립총회(創立總會)를 여러 제반사항을 토의하엿다는데 이제이내용을 알게된 산조당국자들도 지난 이십륙일조합에모여 난경에잇는 조합문제를 협의한바산조에서 즉접일수판매 하기로결정하엿다한다 전기 사실들은 노단회사에서는 대단히 분개하여 지난이십칠일에 단자합명회사 대표로서 류영복(劉永福) 석두선(石斗善) 량씨를뽑아 도산업과에 진정을갓다는바 이제 이문제는 여하히 전개될는지 일반은 매우흥미잇게 주목하고잇다 한다

産組理事談

산업조합 으로서는 공판조합(共販組合)을 조직하는것이 조타고 후원한바도 업거니와 만약중간상인으로 하야금 조합제가 된다면 단자가격이 빗싸질것은 사실임으로 소비자(消費者)에게 큰영향을 밧게되는 관계상 부득이 산업조합이 즉접경영하기로 되엿습니다고 云云

錦城學院에青年部

【京南】 시외 한지면 신마장리(新馬場里) 금성학원(錦城學院)은 소화이년에 유지 윤태병(尹泰炳)씨의 활동으로 창립되여 이래 구개성상을 무산아동문맹퇴치에 매진하든 모범학원으로오는 시월오일부터는 또다시 청년문맹자들을 본위로하야 학부를 신설한다는데 일반의 기대가 자못크다한다

一分間化粧

化粧이밀이지안코젊어지는化粧法

먼저 젊어지는化粧水의구라부乳液을脫脂綿에무처서、얼골부터 목덜미를닥으시면、살결을 優雅하게하여줍니다。

クラブ乳液

이것은、綜合호르몬及美養酵素(專賣特許)의含有에依하야 살결을쎄고도 하고어엽부게하야주는조흔化下가됩니다

그다음 白粉下로써比할데업는 구라부美身크림을 얼골부터 목덜미까지발늅니다。

クラブ美身クリーム

이것은、살것진데볏에 안걸게하는것으로써、優秀한外에 刷白粉이업는안지고永續하야서、化粧이안밀이는 理想的白粉下가됩니다。

그우에 구라부刷白粉을 퍼푸로가볍게두들기여발늅니다。

クラブはき白粉

이것은、얼골의어떠한部分일지라도、늘넘어만흠잡혀어서永續됩니다(비오듯빛、크림肌色、濃肌色、오클、白色等十二色이잇다)

最後로、구라부연지(오렌지又는로즈) 眉墨、입술연지로 完成합니다

B—52

十月의 四海公論

堂堂二百餘頁
○高級아ー트寫眞版四頁入
○挿入寫眞三十餘葉
○表紙三度色刷
圖案界의權威高一畵伯作

定價十錢 送料二錢
注文은振替로、切手도조흠니다。
半年分六十錢 一年一圓
京城府竹添町一丁目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
電話光三三四、二〇五九

朝鮮은論議가만흔곳이라
비싸면비싸서不平
싸면싸니까誤解
그러나、담배한匣안피신셈잡고읽어보시오
實物본담에는感謝狀을안보내고못견딘다는讀者들의말이每日들여옵니다

巨彈! 巨彈!

"이筆者의 이論陣"

修道

李光洙

先生이 世上雜務를팽개처버리고 北漢山麓에 閑居하시며 內觀生活에 깁히沈潜하고 게시는것은 이미周知의 事實이거니와 特히 本誌를爲하야 靈感하신心境을赤裸裸하게 執筆하시게된것은 讀者와가티 本誌의자랑이다。

當來의文明

哲學者요또哲人인先生이現代文明을批評하야그進路를밝인近來의大論策

李載薰

朝鮮經濟와米穀의現狀

「쌀問題」는 朝鮮經濟의中心問題다。이論說은 쌀을中心으로한朝鮮의現經濟를如實히들여낸것이요一部米穀商人의奸策을暴露한것이다。

裴成龍

伊에紛爭은싸고도는 國際政局動向

金麟伊

正義人道論

現代人의澆季狀態를批判하고權威失墮狀態에빠진正義人道를再檢討한一世의大警告文

金海鎭

長篇小說 花心 (第二回)

바다에서 핀사랑 금희!금숙 그리고 그兄弟들의 愛人으로 大學生인 상필은 들중에누구를 사랑하게 되엇든가?

方仁根

世界的提琴家 桂貞植博士의約婚解消?事件

海外十二年동안○博士는마침내世界的大提琴家란榮譽를안고錦衣還鄕하엿다上陸第一步에밀처드는수만흔結婚申請의속에서博士는梨花女專敎授인金福實孃과正式約婚햇스나그結末은?

千眼居士

創作 池博士

朴榮濬

史譚 逸史片々

三大王까지나오는歷史的興味謝話

金東仁

探偵小說 버스콘谷의悲劇

疑問의屍體果然그들속에犯人이누구가?

李曾譯

元文曉聖師

佛敎의太陽인元曉聖師를論한名文

金敬注

修道餘話

文藝研究 국어讀本 第三課

田元培

北米學窓生活의斷片

北米留學을하는者여읽으라筆者의苦學記

笑鵬

紅燈哀曲

紅燈下에서生活하는女人의日記

南松

樂觀과悲觀

金十億

京城은어데로

○○기애큰은것신다보초
탐사개고진은것단다보꼽
義主本資다엿하變은城京
眞의城京닌몰를키로市都
文名한말을믿

三大事業

夢不成

現代와歷史

田元培

柳光烈

鐵近歲小御

崔鳴則

讀者文藝滿載

族嶺 李瑞海

失題 崔筆鳳

해 선물

千一近吟

世界日誌

大文豪의逸話集

世界的大作家 앙리·발뷰쓰와 크랄레運動

D記者

躍進하는朝鮮文化의異彩를찾어 코리아音樂研究所訪問記

K記者

夏眼飛行士 포스트의慘死

一記者

生活偶感

李敬峽

女流鳥人 李貞喜孃故土訪問飛行前會見記

아직도、우리들의記憶에새로운、朴敬元孃의뒤를이어悲壯히일어선孝孃!그는어떠한사람이고어떠한計劃을하게되엿나?

R記者

十七年에倍增한 約二億斤의生産

◇栽培面積이二十萬町步에 栽培戶數는百萬戶

▲머리ㅅ말

南棉北羊은 朝鮮에잇서서 重大國策의 하나이다。棉은 農家의 副業으로서 녯날은 솜따서 실만들어 무명짜서 옷해입어 뜻뜻하게하면 그만이엇스나 文明이란것이 朝鮮에도 들어옴을따러 原始的 이런일은 許치안코 日本內地로 솜을 건너보내고 사드리게 되엇다。原料인 솜을 싸게팔고 製品인 綿織物을 비싸게 사드리는것은 工業이 發展안된 朝鮮으로서는 할수업는일이엇고 朝鮮에서 큰 工場이 雨後竹筍가티 생기어도 朝鮮人 紡績工場이 단한곳(京紡)바게업스니 朝鮮人으로서는 原料인 솜을 팔고 製品인 綿織物을 사는點에는 다름이업다。

×

솜이 웨 國策의 하나이냐하면 그것은 日本內地의 紡績界가 一千萬錘를 넘는 製産能力을 가지고서 그製品이 全世界에 盛行하나 그原料인 솜이 거의 生産되지안는때문에 米國等 外國으로부터 솜을사드리게되어 年年만흔 돈이 外國으로 나갈뿐아니라 이 輸入이 막히게된다면 큰일이겟슴으로 棉作地로서 훌륭한 朝鮮에다가 期待를 붓치고 朝鮮서 棉花를 만히 만들어日本全國의 需要를 充當뿐아니라 輸出大宗인 綿織物의 原料를 될수잇는대로 國內에서 得하자는것이 國策으로 삼는 第一理由이며 솜은 綿織物로서만 아니라 軍需用으로서도 必要함으로 非常時를 떠들기딸어 朝鮮서 만흔 棉花를만들어내자는것이 第二理由가되는것이다。

그리고 農家에게 現金收入을 주게하야 農村의 購買力을 增進식히자는것이 그 第三의理由이라한다。

×

이와가티 重要한 棉作은 朝鮮서 언제부터 시작되엇스며 어떠한 經路를밟버 今日에至하얏고 그間 棉作奬勵는 어떠하얏는가를 살피고 씨를뿌려 收穫하기까지의 實際와生産者인 農民이 이것을 販賣하는데 共販制度로 밧는 利害關係 共販의 實際가 어떠한 缺陷이잇는지? 國策으로 奬勵하는 棉作增産計畫이 生産者인 農民에게 眞實로 幸福을 줄것인가 等等을 알기爲하야 本社 十五大事業의 一인 『產業의本陣을차저서』의 第一位를 占하야 朝鮮棉作의 三分一을 生産하는 全南에 出張하야 木浦棉作支場을 비롯하야 各方面으로 調査한바를 基礎로하야 뒤로 보것을 紹介하는 同時에 若干의 批判을 加하야 棉作에 對한 新認識을 促하며 아울러 多少의 參考에 供하고저한다。

▲棉作의沿革

朝鮮에잇서서 慶北義城郡은 棉作의 發祥地로서 이地方에 棉子를 最初로 輸來한사람은 文益漸(号三憂堂) 先生으로서 江城君 三憂堂 先生은 高麗恭愍王 때 사람이라한다。中國으로부터 棉花種子를 가지고와서 栽培키 시작하고 綿絲·綿布製作까지 製作하야 이것을 普及하얏는데 未幾 百年에 朝鮮內에 流布되어 上下가 衣服用에 供케 되엇이라 한다。慶北道에서는 最近 文益漸先生 棉作記念碑를 義城金城面 大里洞에 建設하고 先生의 功績을 紀念하얏다。이 文氏가 시작한 棉作은 其後 地方에 依하야『花田』이라 稱하고 耕作은 主로農民의 一部에 家庭用으로 栽培되고 自家用 或은 物物交換用으로 거의 全朝鮮을 通하야 栽培되어잇섯는데 그 種類는 東洋種으로서 나종에 생긴 改良種과 區別하야『在來棉』이라고 부르게되엇다。家庭에서 婦人이 在來機織으로 木棉을織하야『三白』中의 一로 紡織業을 獎勵하이오 衣服의 솜과 요 이불 의 솜으로 多量이 使用되어왓다。

×

그리하야 明治三十七年頃의朝鮮棉作面積은 約四萬町步에達하고 其中 平北과 咸南을 除한 各道에 거의 普遍的으로 栽培하얏는데 其後 五千町步에 減하얏스며 綿作物은 衣服의 原料가 되엇는데 明治三十四年에는 韓國으로부터 日本에 棉花를 移出하고 年年 移出額이 增加되어잇다 한다。

그리다가 日本과 條約된 以後 改良種을 드려다 栽植을 奬勵한 結果 二十五年에 朝鮮의 棉花栽培面積은 二十萬町步 栽培戶數 百萬戶에 達하얏다。朝鮮在來棉은 日本棉과 相異하야 그 品質이 可紡價値가 萬하고 栽培適地가 만흠으로 日本紡績의 土地라는 期望의 給源地로 오던 때를 바더 엣잇서朝鮮棉花史上 重大한 新事實이 생기엇스니 그것은 陸地棉의 輸入이 그것이다。

×

明治三十七年 木浦駐在 領事若松兎三郎氏(나종에 仁取社長)이다가 作故)가 陸地棉試作을 計劃하고 農商務省 農事試驗場木浦支場으로부터 米國種 其他 棉種子 十數種의 配付를 受하야 高下島에 播種한 結果 成績이 良好하야 韓國의 風土가 陸地棉栽培에 好適인것을 確知케되어 이것이 朝鮮에잇서서의 陸地棉栽培의 端緒가 되것이라 한다。陸地棉 試作의 結果 米國種『킹쿠스·임푸르부드』種이 가장 好適인것을 알게되자 이것을陸地棉이라고 名稱하고 在來棉과 區別하야 南朝鮮地方에 奬勵하얏던것이다。韓國政府는 棉花栽培協會(明治三十八年 日本서 設立된것)의 建議에 依하야 明治三十九年부터 三個年間 十萬圓의 支出로 棉花採種圃設置、繰綿工場新設과 收穫棉의 共同販賣 等한 種子를 一般에게 配付하얏스며 韓國勸業模範場이 出動하야 棉花栽培奬勵에 當하야 明治三十九年 부터 同四十四年까지 六個年을 經過하는 동안에 陸地棉栽培는 明治三十九年의 作付反別 四十五町三反 收穫實棉 二萬四千九百 八十斤 栽培人員 三百二十六人이던것이 同四十四年에는 面積三千四十二町九反步 收穫實棉二百七十三萬七千五十斤 栽培人員 四萬三千百八十五人으로 增加하엿스며 移出棉花는 四十四年에는 實棉二十七萬一千三百斤 繰綿百十一萬三千三百斤 價額合計二十五萬二千三百九圓이엇섯다。

▲陸地棉擴張

그後의 陸地棉擴張의 經過를 보면

▲第一期擴張時代=南朝鮮六道가 聯合을 組織하야 大正元年부터 六年에至하는 六個年을期하야 十萬町步로 計劃하얏는데 一個年을 延長하야 七年까지에 約九萬餘町步로 擴大되고 實棉收穫이 六千六十八萬九千五百二十斤 移出九百六十萬八千五百斤에 達하얏다。

▲第二期擴張時代=南朝鮮六道에 在來棉을 新作식히기로하야 大正八年부터 十個年을期하야 作付反別 陸地棉十五萬町步、在來棉 二十五萬五千町步를 豫定하야 旣十三萬五千町步에 達케할 計畫을 樹立하고 이에依하야 二億五千萬斤의 實棉生産을 企圖하얏스나 昭和三年 滿期에 旣定計畫대로 되지안어서 昭和四年以降은 作付反別擴張을 中止하고 集約的栽培奬勵로 反當收穫增加를 計劃하얏는바 豫定인 二十萬町步에는 達치못하얏다。

이제 大正八年 第二期計畫以後로부터의 栽培成績을보면 別表와가티 今年의收穫豫想(九月十日現在=農林局發表)은 陸地棉 一億五千三百五十四萬五千七百九斤、在來棉 四千五百三十一萬七千三十九斤 合計 一億九千八百八十六萬二千七百四十八斤에 達하야 昨年實收보다도 四千三百八十三萬八千二百九十一斤의 增收이며 大正八年에 比하면 倍以上의 激增을 示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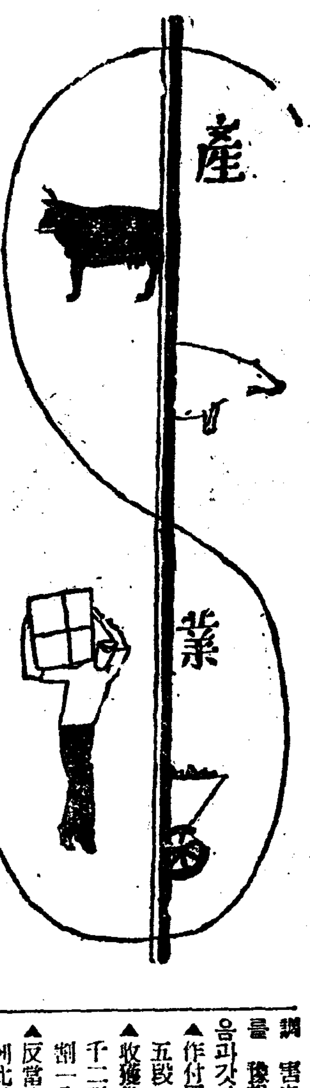
◇…棉花栽培累年成績

年次	作付反別 陸地棉	作付反別 在來棉	作付反別 計	收穫高 陸地棉	收穫高 在來棉	收穫高 計
大正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豫想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寫眞은天水畓棉作狀況

產業의本陣을차저서 (六)

特派員 李健赫



京畿道서도今年부터 棉花共販을實施

棉花取締規則도同時에發布

今年 京畿道 棉作은 良好하야 增收를 볼 豫想이라는바 道에서는 從來에업든 棉共販을 今年부터 實施할모양으로 近日中總督府協定 四級을 標準으로南北棉株式會社와 契約을 締結하야 十月一日부터 棉共販을開始하얏는데 道內 棉收穫豫想八百萬斤中 百萬斤가량이 共販에出廻되리라고한다 그러고 道에서는 棉花取締規則을發布하야 仲商人의 棉花買收를 禁하는同時에 共販을 一層强化한다고한다

米運賃低下로 棉運賃引下要求

總督府서朝郵에交涉

今年度 棉花運賃은 船會社側에서 六月頃에 一噸 三圓으로決定發表하얏스나 最近棉花運賃算出의 標準이되는 米運賃이 急激히 低下하얏스므로 棉花運賃도 이에 따라 當然 低下할것으로 總督府農林局에서는 一兩日中에 朝郵에對하야 交涉하야 그引下를 要求할터이라한다

그런데 前年度는 一噸四圓十錢이엇는데 當時米運賃에 比較하야 今年은 二圓七八十錢가량이 妥當하다고한다

油類統制計畫

滿洲國實業部서

【奉天】나날이 發達되는 滿洲內의 機械工業과 航空界에 必需品인 潤滑油를 兼當키爲하야 設立된 피마주油工業 奉天製油 滿洲植物油、極東生業等四社와其他 計畫中에잇는 二社까지合하야 大社가될터인바 滿洲國實業部에서는 諸般의 軍需、國防上重要한 점으로 今後右記會社의 發達과 利用을 하기爲하야 國家的統制를加하게되리라하며 境遇에따라서는 强制的으로 各社의事業合倂까지도 行할模樣이라한다

滿洲財界大混亂

錢莊業者의倒産、轉職續出

國幣對金貨同價政策으로

【奉天】國幣의上下가 無常하든 滿洲國幣對金貨同價政策으로 近來에 同價로 營業을하든 全滿五百餘의 錢莊은 業務不振으로 大打擊을 밧게되여 一方으로는 倒産、轉職等으로 滿洲經濟界에 大波動을 일으키고 잇는中이라한다

坡州地方名産 蟹大豐獲

近處農民晝夜採取

【坡州】坡州蟹는 이地方名産으로 이름이놉거니와 十餘年前부터 禁止되엇다가 昨年부터 當局으로부터 解除命令을受하야 每年數萬圓의 蟹가 産出되다고한다 今年에도 例年과가치 産出될으로 每日數百名의 農夫等은 白露前을 지낸뒤로부터는 밤낫업시 每日數千의 蟹를 잡어낸다고한다

平南道棉作 增收豫想

≪比前年四割一分餘增≫

【平壤】平南道 農務課調査에依하면 今年道內 棉作은 氣候好調 害蟲의 被害가업서 大增收를 豫想한다는바 槪況을들면다음과갓다

▲作付反別 二萬五千三百五十町五段 前年에比하야二分六厘增

▲收穫豫想은 二千百四十九萬一千二百六斤 前年에比하야 四割一分六厘의大增收

▲反當收穫豫想 八十二斤 前年에比하야 二十三斤增 그러고 各郡作付反別收穫豫想及 段當收穫의 前年對比는如左하다

府郡別	作付反別	收穫豫想	段當收量 今年	同上 前年
	町	斤	斤	斤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順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孟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陽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成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龍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德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价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寧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閑散期를脫出 南朝鮮海苔採取

慶南은廿日、全南은卅日부터

오래동안의 閑散期를지나 南朝鮮의 海苔業은 漸次採取로 드러가게될터인바 慶南은 今月二十日부터 全南은 三十日부터 採取에 着手하리라는데 當日은 各其 道、郡技術者及 業者들이 總出動하야 儀式을 開始하는것으로 今年 海苔의 採取가 始作된다고한다

新浦海岸一帶 鰛魚大豐獲

空前의好況을出現

【新浦】每年 咸南水産業의 首位를 다투는 新浦의 海産業漁村은 累次本紙에 報道되는바이어니와 더욱 今年은 未曾有의 鰛魚豐獲으로 市街의 大活氣는 勿論이고 地方에까지 好景氣가 미치고잇는바 이지음 新浦沿岸一帶는 空前의 大豐獲을 目하야 出漁의 巾着網刺網船等은거이다 鰛魚漁船의 旗를 놉히달고 드러와 各鰛魚肥工場마다 文字그대로 鰛魚世上이다 그리하야 當地의 今春以來 鰛魚水揚高(九月二十八日)까지를 調査하면 漁撈會社 三萬四千桶을筆頭로 其外 三十餘工場것을通算하야 約二十萬桶이되는바 昨年同期에 比하야 一倍半以上의 增産이라한다

各工場人夫不足 鰛魚消化에支障

다음에 當地各鰛油肥製造工場의 狀態를보건대 連續的으로 잡어드리는鰛魚가 山積하얏스나 工場主는 人夫不足과 機械不完全으로 밋처 此等鰛魚를消化치못하고 적절헤매는 現象인바 人夫를 募集하기爲하야는 直接 募集員을 外地에 派送하기까지 한다고한다

全州麵子會社 業務를大擴張

【全州】年産額三千餘石에 七萬餘圓의 大量生産額을 가지고잇는 全州麵子合資會社는 最近 業務를擴張하고 品質改良과 價格低廉을目標로 大工場新築等大計劃을 樹立하고 適進하고잇다는바 同麵子會社는 大正七年六月에 李重泰氏가 設立하엿든것이 昭和六年頃에이르러 經營難에 빠저 一時營業을 中止하고잇다가 忠南의 實業家 尹吉重氏가 前經營者로부터 讓受하야 昭和七年八月에 正式으로 引受한후 當時 財務當局과 充分한 妥協下에 二百餘坪의敷地를 買受하야 豐南町에 木造工場을 新築하고 四十餘名職工을 採用하야 優良製品生産에 注力을하여왓스며 昨春부터 在來品을 廢하고 硏磨機一臺를 購入하야 改良麵子를 製造해오는中이라한다(寫眞은全州麵子會社作業場)

江西地方棉花大豐

【江西】平南江西地方은 今春부터氣候가適當하야 모든農作物은 豫想以上의 豐作을 일우엇스며 더구나 棉花는 昨年度의 十五萬斤과 今年度의 四十萬斤을 比較하면 實로 二十五萬斤增으로 年度의 約三倍의增收라하며 棉作坪數는 昨年度에는 三千百町步이든것이 今年度에는 三千三百町步이엿다고한다

江西棉花共販開始

【江西】平南江西郡農會에서는지난二十日부터 各管內 共同販賣所에서 棉花共販을 開始하엿다는데 去二十四日 江西共販의時勢는 如左하다고한다 ▲特等 十四錢四厘▲一等 十三錢四厘 ▲二等 十二錢三厘 ▲三等 九錢三厘▲等外 六錢三厘

貨物運送關係 規則改正의影響

(一) =一般貨主에及하는要點=

貨物運送關係 諸規則이 改正되엇다함은 이미 報道하얏거니와 이제 그 一般貨主에及하는 要點을 擧하면 다음과갓다

一、從來 危險品은 原則으로 普通品과 一口取扱이 禁止되엇든바 今番의 改正에 依하야 火藥類及可燃性固體以外의 危險品은 모다 普通品과 一口로 取扱할수잇게되엇다 그러나 此境遇 其全部를 危險品으로 取扱한다 此改正에 伴하야 危險品과 普通品과를 一梱包로하는 境遇가 잇슴으로 其荷造는 當該危險品의 包裝에 依할 旨를 明示하얏다

二、標準重量에 依하야 取扱하는 貨物을 如左히 改正하얏다

(가) 白米(三十瓩袋入)、硫酸암모니아(三十七瓩五分袋入)、過燐酸石灰(二十八瓩五分紙袋入)、及石灰窒素(二十二瓩五分紙袋入)은 鐵道에 運送을 申込하는 境遇 從來는 荷主가 一一히 其重量을 檢量하야 申告하기로되어잇섯스나 今番의 改正에 依하야 이檢量을 省略하고새로 鐵道에서 定한重量 即 白米는 一個卅瓩·一噸當三十二個、硫酸암모니아는 一個卅七瓩五分 一噸當二十六個、過燐酸石灰는 一個卅瓩 一噸當三十三個四、及石灰窒素 一個卅二瓩 一噸當四十三個五分으로申告取扱하게되고同時에 白米는 三十一噸分의 運賃을支拂할境遇는 一車에 一口一千袋積載를 認한것으로此點이 大단히便利하게되엇다

(나) 세멘트(五十瓩紙袋入)、麥酒(大瓶二打詰箱入)은 荷造材料의 改良에 依하야 一個의 重量이 低下되엇슴으로 세멘트는 一個五十瓩五分 一噸當十九個九分 麥酒는 一個三十五瓩 一噸當二十八個五分으로 取扱하기로되고 세멘트紙袋入과 如한것은 從來 麻袋入과 同樣한 取扱을 바다 一車五百九十一袋에서더 積載함 …

(다) 食鹽(四十八瓩叺入)、同(百七十瓩俵入)、(三十瓩叺入) 同(八十五瓩俵入)、(三分의一俵袋入)及同(四分의一俵袋入)은 最近 荷動이 殆無하야 標準重量規定의 必要를 認치안흠으로 이를 廢止하기로되엇다

三、鐵道에서 請求하는 附添人은 全部 無料로되엇다 따라從來 有料이든 家畜以外의 動物 又는 活魚介類 車扱에 依한 甲種의 火藥類等으로 鐵道에서 附添人을 請求한 境遇는 無料로되엇다

四、貨物引取의 催告를 規定하야 貨物이 着驛에 到着하야도 貨物到着通知를 發한날부터 起算하야 三日을 經過하야도 引取가업는時는 荷受人에 對하야 다시 引取의 催告를 發하기로되어 貨物의 引取를 迅速케하고 또 到着通知의 不測의 損害를 입히는일이업도록 着荷着等으로 荷受人에게 하얏다

五、引渡證明書發行期間은 從來는 貨物受託後 二個月以內에 限하얏섯스나 이를 六個月以內로 곳치어 荷主의 便宜를 圖하얏다 (繼續)

副業産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 九月廿四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도라지	同	[illegible]
馬鈴薯 白	同	[illegible]
同 赤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中國胡瓜	百個	[illegible]
朝鮮胡瓜	同	[illegible]
金眞瓜	同	[illegible]
白瓜	同	[illegible]
수박	一貫	[illegible]
茄子	百個	[illegible]
열무김치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玉葱	同	[illegible]
靑葱	十把	[illegible]
미나리	十把	[illegible]
蓮根	一貫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乾蕨根	一斗	[illegible]
松茸	百匁	[illegible]
椎茸 成宿	同	[illegible]
苹果 旭	四貫	[illegible]
同 紅玉	三貫	[illegible]
同 倭錦	四貫	[illegible]
梨 龜浦	四貫	[illegible]
同 鮮物	三貫五百匁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葡萄	一貫	[illegible]
桃	三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百斤	[illegible]
고추 中國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生)	一斗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雞飼料	一〇	[illegible]
育成雞用配合飼料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麩	同	[illegible]
玉蜀黍碎	百斤	[illegible]
同 中割	九〇斤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碎	同	[illegible]
同 粉	百斤	[illegible]
蠶蛹用粉	九〇斤	[illegible]
魚粉ㄨ粕	一二五瓩	[illegible]
糠	十貫	[illegible]
貝殼	八五斤	[illegible]
	百二十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龜甲 四尺幅	一升	[illegible]
四尺幅 二寸目	百尺	[illegible]
四尺幅 一寸半目	同	[illegible]
四尺幅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一寸半目	同	[illegible]
三尺幅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五分目	同	[illegible]
背金網 一分目	三尺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百匁	[illegible]
生豚	一貫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鷄卵	同	[illegible]
同	百個	[illegible]
四季鳥卵	同	[illegible]
鶉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백작아	同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藺草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二一六三	金銀鑛	平北熙川郡東倉面	九月十二日	京城府御成町 [illegible]
二一六四	同	黃海海州郡錦德面	同	[illegible]
二一六五	金銀銅鉛	江原蔚珍郡近南面 遠南面	同	[illegible]
二一六六	金銀鑛	平北熙川郡西面	同十三日	京城府淸進洞 [illegible]
二一六七	鐵鑛	全南務安郡黑山面	同	東京市京橋區寶町 昭和鑛業株式會社
二一六八	石炭	慶南蔚山郡江東面 慶北慶州郡陽南面	同	釜山府凡一町 代表者 [illegible]
二一六九	金銀鑛	平北熙川郡北面	同	平壤府大寮里 代表者 [illegible]
二一七〇	同	慶北奉化郡小川面	同	新義州堂井町 [illegible]
二一七一	同	京畿驪州郡金沙面	同	大阪府東雲町 代表者 [illegible]
二一七二	同	平北昌城郡新面	同十四日	東京市麴町區丸之內 三菱鑛業株式會社

鑛務一般及出願手續

和順鑛務所

京城鍾路

(和信商會越便)

電話光化門局2659番

特許伸國設備가完全하오며 地方便宜를圖키爲하야通信事務를取扱함

火賊 林巨正 (95)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五의五

한온이가 꺽정이 아페 가서 『선생님 자리에 가서 안지시지요』 하고 권하며 윗편으로 아래목에 물러서는 기집들 틈에 보고 『왜들 죽 섯나 계향이 이리 와서 선다님을 뫼서다가 안지시게하구 자네들두 다안께』 하고 말하야 꺽정이와 기집들을 모다 안친뒤에 웃간구석에 안저잇는 황천왕동이게와서 『여보게 아랫간으로 나려가세』 하고 말을 부치고 『자 넘어나게』 하고 손목을 잡아 넘으켜서 황천왕동이는 서울은 사연이나 꺽정이에게 이야기하고 헤빼지기전에 떠나가라고 생각하고 한온이 끄는대로 아랫간으로 울라와다 한온이가 자긔 안첫든 자리에 황천왕동이를 안치고 여페와서 부려안즈며 『하읫솔이나 한잔식 먹어야지』 『머러냥은 찌꺼지두 친구대접 한다구 꽤까다롭 부리기전에 술을 새루 내와야겟다』 하구 혼자 지꺼리고나서 건느방을 향하고 『이놈 이리좀 오너라』 하고 상노아이들을 불럿다 『나는 술생각 업스니 고만두게』 『이사람 하읫솔 실타는데가어듸잇나』 한온이가 대답하는중에 상노아이들이 건너와서 한온이는 주상을 내가고 안에 들어가서 술로 한상 잘차려 내오라고 말해 널럿다 상내가는 수선이 끗나 뒤에 황천왕동이가 꺽정이를향하고안저서 『언제는 내가 오구시퍼 오구 왓 어나지만 이번은 엇재 그러튼지 더욱이 오구십지안은 것을 하루 갓다오라구 말들을해서 할수 업시 왓습니다 내가 오죽 오지안으려구해야 이번만 갓다오면 다시가란말 아니하마 말하는사람까지잇서 겟습니까 나는 이번만 오구 다시 안오게될줄 생각못하구 왓드니 인제는 참말루다 시올리가업습니다 사람이 입찬소리는 못할것이지요만 이번이 내일생의 마지막 서울걸이될른지 몰음니다 내가아 번오사연은 말슴안해두 다아 실레니까 긴말슴할것업구 여러사람의 하는말이나 대강 전해드리구 곳 떠나 가겟습니다』 『여보게 작간 내말좀 듯게』 한온이가 황천왕동이의 말끄를 무질르리라고 하얏다 『말슴하든것 마저다 하구나서』 자네말을 등을테니 조금 가만이잇게』 『아니 내말부터 듯게 자네 떠나가긴 어듸를 떠나 간다나 그러구 서울길이 마지막이라니 내가 보기실여 서울 안 오겟단말인가』 『아니』 『아니면 무언가 사내 자식이 그만일에 꽁해가지구 친구를 끈는다 마는니 말이되나 저런 색달은친구들 듯는데 창피하니 우리 달은이야기나 하세 뒤숫게 뭇기두 제면적으지만 여러분들 다 편안하신가』 황천왕동이가 고개만 끄덕이고나서 『오늘 가든안커든 말슴하든것이나 다하구』 하고 다시 꺽정이 보고 말을 니어하라고하는것을 여페서 한온이가 손을 내저으며 『이런자리에서 말슴이 무슨말슴이야 말슴은 두엇다하게』 하고 가로막아 못하게하얏다 아무소리안코 가만이 안저잇든 꺽정이가 황천왕동이더러 『이애기는 잇다가 하자』 하고 말하는데 말소리가 제법부드러웟다 황천왕동이는 꺽정이의 말이 한온이의 뜻을바 뒤 나온것이거니 짐작겨 생각하야 부드럽게 하는말을 평소에 흘뿌려하는말마큼 못녀기엇스나 기집년들 듯는데서 이런말저런말할것업서서 꺽정이 말대로 잇다가 조용이 하리라 맘을먹엇다 얼마동안 안지 나서 떠벌어진 주안상 한상이 들어와다 한온이가 황천왕동이 마진편에 가서 안진뒤에 기집들을 보고 『예번이 한데 포갬포갬안저지말구 둘둘은 새루오신 손님여페 가안저서 술을 만이좀 권해주게』 하고 말하야 기집들이 황천왕동이 좌우에 와서안저다